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여호수아의 면류관

(스가랴 6:9 - 15)

구약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지금까지 여덟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본문은 지금까지 본 환상의 클라이맥스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 1. 하나님의 행동 계시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9절).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말씀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말씀 계시가 아닌 행위 계시를 하시기도 합니다.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행동 계시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에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우십니다.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신 후 정결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성전을 속히 재건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성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돈이 없거나 건축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네 명의 이름에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대는 ‘주님의 세계’라는 뜻이고, 도비야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입니다’,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도록 하는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2. 메시아의 두 가지 직분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11절).

면류관은 히브리어로 ‘아타로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복수명사로 면류관은 ‘면류관들’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은 두 개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메시아에게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은 절대로 겸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왕직을 겸하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13절).

메시아는 영광을 얻고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고 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메시아에게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은 절대로 겸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왕직을 겸하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으므로 두 개의 면류관을 만들어 그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며 무엇보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 3.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메시아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12절).

구약성경에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도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전은 하나님에 임재하시는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었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곳을 떠나셨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벰엘(House of God)에 다시 임재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후일에 이스라엘이라 바뀌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Tent)에 임재하셨고, 후일에 성전(Temple)에 임재 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은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을 지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었으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12절).

썩은 영어성경에서 ‘brench’라고 번역합니다. 썩은 스가랴 3:8에서 이미 나온 말씀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자기 곳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아래로부터,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곧, 베들레헬을 말하고, 또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비천한 곳, 덜 준비된 곳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13절).

여호와와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교회에 계셔 영광을 받으시고 속죄 사역과 통치 사역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엡 2:21),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썩이 처음에는 연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장성하여 마침내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먼 데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새 예배당 헌당일정 확정

## 9월12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기도로 준비한 마지막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우리교회는 지난 2000년 성탄절에 입당한 이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성도들이 모이고 말씀이 넘치는 축복으로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하여왔다.

지난 14일(수) 당회는 2005년 11월 27일 교회설립 기념주일에 헌당식을 갖기로 결의를 하였다.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을 작정하였고 이러한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를 바탕으로 이 곳 대치동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곳 대치동 예배당에

최근에 처음 등록을 하여 우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새가족들은 건축헌금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중 내년 교회설립 14주년 기념주일을 교회당 헌당을 하는 봉헌의 날로 정하고 9월12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을 모아 마지막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번 건축헌금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희생의 예물을 받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을 사경회 열린다

- 주제 :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9)
- 일시 : 9월6일(월) - 10(금) 매일 새벽 5시 - 6시 30분
- 강사 :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담임)

다가오는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더불어 열매 맺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가을 사경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번 가을 사경회는 오는 9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열리게 되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을 주제로 새문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영 목사가 강사로 서게 된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한다.

# 교육 1국 여름성경학교 장년부 · 디아스포라부 수련회

지난 주부터 시작된 2004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뜨거운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주에는 22일(목)부터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속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로 모이게 되고 장년부 수련회와 디아스포라부 수련회가 모이게 된다.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한다.

장년부 수련회는 '찬양 수련회'로 모이게 되는데 연합 다락방 모임도 함께 함으로 온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

하여 감사와 고백의 밤이 되고 뜨거운 찬양의 여름 밤수련회가 될 예정이다.

이중윤 목사의 은혜의 말씀과 국제 복음주의 유학생 연합회 (KOSTA) 찬양 사역사이신 안 민교수(고신대교수)의 찬양집회로 이어지는 온가족 수련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장년부에서는 이번 수련회에 올 때 차 안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 조직 개편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조직한다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 5월 집사 권사 선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피택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일꾼들이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원들은 한 달 간 연구를 하고 오는 8월13일에 열리는

장로 수련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광성 오정수 전기섭 (이상 기획위원)
- 임상현 노문환 이성득

# 7월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셋째 주일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7월 셋째 주일이 되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7월 성경통독자들을 시상한다. 7월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3독> 유을상 집사(6교구) 박명석 권사(12교구)
- <2독> 이갑연 집사(2교구) 김인식 권사(8교구)  
장덕 집사(12교구)
- <1독> 손병석 집사(3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이용자 권사(12교구) 남정열 성도(12교구)

# 결혼식에 관한 예식 지침 추가 규정 확정

교회는 다음의 결혼식에 관한 예식지침 추가규정을 확정하였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다음의 조항을 참고하여 결혼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 위임목사의 주례를 받기를 원하면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 중 1인이 등록한 지 3개월이 지난 자로 학습 또는 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단 결혼식 장소는 본 교회로 제한한다.
2. 본 교회의 등록 성도 중 교회 외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원할 시에는 교구담당목사가 주례할 수 있다.
3. 부모가 등록교인이고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 모두 타교인일 경우 교회 장소 사용은 가능하며 이때 교구담당목사가 주례한다.
4. 본당 사용을 원할 경우 하객 1,000명 이상(식당 예약)이어야 하며 교회 형편이 허락하는 날에 허락할 수 있다.

# 오르간 사용자격 및 사용규정 확정하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오르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 교회는 다음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1. 신청자의 자격
  - 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며(세례교인)
  - ② 오르간 전공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오르간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 ③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정회원으로
  - ④ 본 교회 예배위원회 찬양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국내외의 오르간 콩쿨에 입상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 의무
  - ① 본당 대관료는 50만원으로 오르간 사용료는 20만원, 도합 70만원으로 한다.
  - ② 연습시간은 총 10시간 이내로 한다.
  - ③ 본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회를 개최할 때에는 대관료는 면제하고 오르간 사용료만 내고 연주할 수 있다.
  - ④ 본당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음료수나 음식물 반입은 본임 책임 하에 제재하여야 한다.

3. 연습규정
  - ① 교회에서 임명한 오르가니스트와 예배 반주자에 한한다.
  - ② 기타 피아니스트가 요청 시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한다.
  - ③ 국제적으로 알려진 오르가니스트나 화음 정오음 악회 초청자에게 정한 시간 허락할 수 있다.
  - ④ 본 교회 초청 오르가니스트나 교회가 인정하는 이에게 허락할 수 있다.



만민에게 전도 - 2004 농촌 전도대를 모집하며

# 봉화를 바라보며...



**이관규 장로**  
(2004 농촌전도대 대장)

우리 한국교회의 요람이며 근본이자 뿌리인 농촌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었던 농촌교회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시골 농촌 교회... 지금은 모두들 도시로 물려와 황폐해진 농촌교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상북도 봉화군 분천지역을 우리의 사명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필사의 각오로 훈련된 전도대원과 사랑의 이미용선교팀 그리고 늙고 병든 몸을 치료하는 의료봉사대원으로 구성된 우리 농촌 전도대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의 오지와 같은 이곳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기도하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여리고 성과 같은 분천지역 주민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서울교회의 목표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겸비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승리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협력하여 영광의 승전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70인 전도대 전도보고

#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은순 집사(70인 전도대, 10교구)**

저는 4년 전에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채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사랑하시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많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지 못한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고 그 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권사님을 통해 전도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도방법과 말씀을 배우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도학교에 들어온 지 3주째 되었을 때 전도대장님의 권역을 받고 70인 전도대에 합류하여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던 첫날 조장님과 함께 은마 아파트에 갔습니다. 무작정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네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때 저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날부터 새벽기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영혼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케 해 달라고... 그

후 저는 전도하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멀어 전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했지만 지루하거나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던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직접 벨을 누르고 전도하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는다고 문을 열어 주었는데 그 만 한 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이에 문은 광 닫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마음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몇 집을 계속하다가 조금씩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했습니다. 벨을 누를 때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르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머니께서 왜 자주 오느냐며 화를 내셨는데 그때 저는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또 온 것은 아주머니가 뵈고 싶어서지요"라는 지혜로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학교 9기를 수료하고 이제는 김경희 권사님과 조를 이루어 조장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은마 아파트 3개동의 조장으로 배정받아 전도를 하는 중에 친척 3명과 믿지 않는 새신자 1명과 은마 아파트 세 가정을 전도하여 현재까지 모두 7명을 등록케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70인 전도대원으로 불러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제4기 단기선교팀 개인기도제목

# 기도외에는...



**왕경래 장로**

- 단기선교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곽속권사**

- 선교기간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역사 있기를.
- 건강을 주옵소서.



**조문현(청년부)**

- 하나님의 역사가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남을 통해 방글라데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조은(대학부)**

-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복음을 힘써 전하기를...
- 단기선교대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박준희(대학부)**

-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강예주(대학부)**

- 방글라데시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나라에 전할 수 있게
-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곽정임(대학부)**

- 하나님이 주신 온 몸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그 땅을 위하여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주 계속)



# 2004 여름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오세요

신용식 장로 (유년부 부장)

즐거움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체험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교회 교육 1국에 소속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나라와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7월 22일(목) 부터 7월 23일(금)까지, 유년부는 7월 22일(목)부터 7월 24일(토)까지입니다.

교육 1국에 소속된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공부, 지식도 필요하지만 신앙 없는 지식은 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

며 협동심과 양보를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공동체 속에서의 친구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인격과 신앙을 심어주며 장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고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이웃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참된 근원을 찾아서

박경일 전도사(디아스포라 지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부 개설 후 첫 여름 수련회를 7월23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는 암흑의 땅 북한에서 살다가 참된 삶의 자유와 행복을 찾

아 모진 고난의 길을 헤쳐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 형제 자매들이 모인 성경공부반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 아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면서 이루어진 남한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자신들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믿고 따르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만이 그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올바르게 정착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유년부 · 초등부 전도의현장을 가다

## 복음을 위해 땀 흘리는 스승들 ...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토요일 낮 12시.

대치 초등학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어깨에 큼직한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꺼운 책을 들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색인형이 매달려있는 기묘한 장갑을 끼고 있기도 한 것이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이런 사람들이 돌 혹은 셋이서 짝을 지어서, 길목마다 자리를 잡고는, 교문에서 누군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기를 몇 분쯤, 마침내 교문에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본 이들은, 갑자기 행동이 바르게 움직였다. 어깨에 큼직한 가방을 매고 있던 사람은, 가방 뚜껑을 열고는 아이스크림을 꺼내기 시작했고, 두꺼운 책을 들고 있던 사람은 책을 아이들을 향해 펼쳤다. 그리고 색색의 인형이 달려있는 장갑을 끼고 있던 사람은 장갑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 사람들은 디류 아닌 길 잃은 '어린' 양

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 초등부 선생님들이었다.

유, 초등부는 작년년부터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앞 전도에 나선 것. 처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다 도망치던 아이들도, 이제는 많이 친해졌는지 묻는 말에 대답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한결 같은 말씀이었다.

이번에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는 아이스크림과, 글씨 없는 책을 응용한 색인형 장갑이라고. 여름의 무더위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했고, 색색의 인형 장갑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웅기종기 모여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수는, 어느덧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불어나 물 밑 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성없이 밀려오는 아이

들 중에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진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에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며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치 주님이 어린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느낀다며 웃음 짓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다.

오주명(편집부)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2일(목) 23(금)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전문위원들을 소집한다.
- 이사: 소정부 집사, 강희자 권사 가정(8교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동남빌라 308호 T.031-213-3052
- 개업: 12교구 장희원 집사, 박승희 집사 '홍진독서실'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189-3 T.042-931-3978
- 주간 식당봉사: 한나 여전도회(7월18일) 당회원(7월 25일)
- 금요일야담부서: 오리문답부 신혼가정부(23일) 디아스포라, 신앙강좌반(30일)
- 금주의 식사: 왕경래 장로(김정희 권사)가정 - 자녀결혼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국문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